팔만대장경 2005년까지 DB화

1차 4,500경판 완료, 법보 · 수다라전 보관분 진행

과학적 보존 · 훼손부분 복원 등 가능

국보 32호이자 세계적 문화유산인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의 경판수가 8만여장에 이른다는 '어림짐작'을 빼고 나면 우리가 팔만대장경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

대장경 판각장소를 둘러싼 이견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장경의 권수나 경판의 수마저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문화재청 자료에는 일제시대 조사 자료를 근거로 1,496종 6,568권 81,258장으로 기록돼 있지만 정부가 설치한 문화재 안내문에는 1,501종 6,708권으로, 국사 대사전에는 1,511종 6,802권 81,137장으로 나와 있다. 경판 한 장 한 장에 대한 자료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3차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판 한 장 한 장을 디지털 카메라에 담아 이를 3차원 디지털 영상으로 보존하는 작업이다.

지난해부터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디지털 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진행해온 문화재청과 해인사 팔만대장경 보존연구원은 1차로 법보전에 보관중인 4500경판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마치고 최근 조사 자료집을 발간했다. 〈대지도론〉 〈금강반야론〉 〈섭대승론〉 〈유가사지론〉 등 대승불교서의 논서에 해당하는 경전들이다.

◇팔만대장경이 3차원 디지털 영상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진은 해인사 장경판전(국보 52호)에 보관된 고려대장경판(국보 32호).

동 · 서 사간전에 보관된 고려각판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이미 완료한 상태고, 법보전과 수다라전에 보관된 고려대장경판에 대한 조사는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2005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완료되면 대장경판의 원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경판의 과학적 보존과 훼손된 경판의 복원까지 가능하다. 고려대장경의 정확한 종수와 권수, 경판 수의 확인이 가능한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대장경에 대한 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영상화 및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은 사람으로 치면, 경판 하나하나에 대한 '호적'을 정리하고 '건강진단서'를 작성하는 일이다.

우선 경판 한 장 한 장에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고유 코드 번호가 부여돼 무슨 경, 몇 권, 몇 장이 장경판전의 무슨 판전, 몇 번 판가, 몇 층, 몇 번째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고려대장경 영인본과 한글대장경, 일본의 신수대장경에서는 몇 권, 몇 쪽에 해당하는지도 비교할 수 있다.

게다가 경판의 앞 · 뒤 사진과 함께 그 경판의 길이, 폭, 두께, 무게 등 각종 제원, 경판의 부식 상태, 글자 마모나 훼손 정도 등 현재 보존 상태를 세밀하게 컴퓨터에 입력해 놓음으로써 경판의 점검과 보수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인사 고려대장경판은 세계적 문화유산이면서도 경판 하나하나에 대한 각종 제원 및 상태를 기록한 자료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완료되면 경판의 원형에 대한 자료를 영구 보존할 수 있어 고려대장경의 과학적 보존과 체계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고려때 선종부흥은 居士禪 영향"

조명제 씨, 선학회서 주장

고려 전기 선종사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거사선(居士禪)'의 출현이다. 그렇다면 이자현(1061~1125), 윤언이(1090~1149) 등으로 대표되는 거사불교는 당시 선사상의 흐름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15일 '한국선이란 무엇인가-고려전기의 선'을 주제로 열린 한국선학회 제2차 정기학술회의에서 '고려 전기의 거사선(居士禪)'을 발표한 조명제(일본 고마자와대 특별연구원) 씨는 "고려시기의 지배층 문인들은 불교계와 밀접한 교우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거사들이 일방적으로 승려들에게 사상적 영향을 받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거꾸로 사상적 영향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배층 문인들 승려들과 밀접한 교우관계

이자연 · 윤언이 등 혜조 · 담진에 사상적 영향

조 씨에 따르면, 의천의 천태종 개창으로 최대의 타격을 받았던 선종은 12세기 들어 부흥의 기반을 다져나간다. 이 과정에서 선사상에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나는데, 우선 〈능엄경〉이 성행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안선의 경향을 담고 있는 각종 어록이 수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능엄경〉은 지눌 이후 13세기 수선사 계통에서도 중시됐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적 흐름은 바로 이자현 등 거사들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 조 씨의 주장이다. 12세기 이후 이자현에 의해 〈능엄경〉이 중시되었고, 그의 사상적 영향으로 선종계에서도 선의 이론과 실천을 담은 하나의 소의경전으로서 〈능엄경〉이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조 씨는 "이자현은 혜조국사 담진, 탄연 등과 교유하면서 사상적 영향을 주었고, 원진국사 승형은 이자현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 〈능엄경〉을 널리 유포시키기도 했다"며 "〈능엄경〉이 고려후기 사상사에서 갖는 의미와 관련지어 볼 때 이자현의 사상적 영향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조 씨는 "12세기 고려 불교계에는 간화선이 수용될 수 있는 내적 기반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선종계의 역할도 크지만 거사선의 흐름 속에서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이 선종계와의 교류와 영향을 통해 더욱 확산되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 중 · 후기 선사상 종합규명

권기종 동국대교수 '고려시대 선사상 연구' 출간

정혜결사운동을 바탕으로 한 지눌의 선사상은 조계산 수선사를 중심으로 16국사에 의해 선의 중흥을 가져왔고 교종의 이론까지 수용해 새로운 한국적 선사상의 체계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권 교수는 지눌계의 사상과는 맥을 달리하는 흐름에도 주목한다. 교종 이론을 원용한 지눌 선사상에 반대한 지겸의 위앙선, 일연의 조동선, 천책의 〈선문보장록〉 사상 등 재래 구산선문의 선사상에도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선사어록 · 행정 등 통해 성립 · 전개과정 밝혀

맥 달리하는 '조동선' 등에도 상당부분 할애

고려말 임제선의 도입과 선양에 힘쓴 태고, 나옹, 백운에 대해서도, 태고의 경우 지눌과 일맥상통하는 간화선풍을 선양했지만 나옹, 백운은 지눌계와는 다른 선사상을 주창했다고 파악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 권기종 교수(사진)가 최근 펴낸 〈고려시대 선사상 연구〉(한국불교연구원)는 고려 중 · 후기 선사상의 종합적 규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려 후기 선사들의 저술과 어록, 행장과 금석문을 기초로 그들의 선사상을 규명하고 있긴 하지만 특정 선사의 선사상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가 고려 후기 약 200년간 있었던 선사상의 정립과 전개 과정, 그 중심사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지눌 이후 고려후기 불교의 선사상은 한국불교 선사상의 전통이 확립되던 중요한 시기다. '견성성불'의 자력 신앙인 선이 일종의 타력 신앙인 정토사상을 흡수했다는 점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정토교는 지눌, 보우, 나옹의 선사상에 수용되어 지눌의 정혜염불, 보우의 공안염불, 나옹의 무념염불로 발전됐다.

권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일반독자들이 읽기 쉽게 새로 고쳐낸 책이다. 논문에서는 한자로 된 용어를 한글로 고쳐 한자는 괄호 안에 넣었고, 한자로 된 원문 역시 한글로 번역했다.

경주 나정부근 팔각건물터 발견

목탑지 추정…제사시설일 가능성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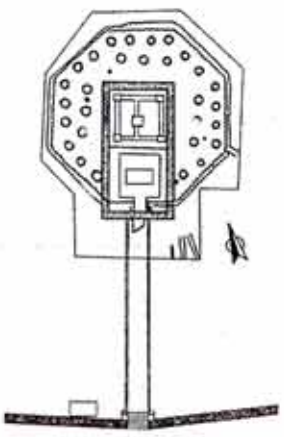
통행할 수 있게 돌포장 도로 20m 조성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가 태어난 전설을 간직한 우물인 경주 나정(사적 245호) 일대에서 통일신라시대 팔각형 건물터가 발견됐다.

지난 5월부터 나정 일대 정비사업을 위해 이 지역을 발굴 중인 중앙문화재연구원은 12일 한 변의 길이가 8m, 동서 · 남북 길이가 20m쯤 되는 팔각형 건물터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화강암을 쌓아 만든 이중 기단 형태의 건물터 남쪽으로는 얇은 돌을 깔아 사람이 다니도록 한 도로시설이 20여m 확인됐다. 사자문수막새, 연화문막새, 당초문암막새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봐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문화재연구원은 "기존에 조사된 팔각 건물터가 대부분 목탑지인 것을 감안하면 일단 목탑이 있던 곳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삼국유사〉에는 월성으로 궁을 옮기기 전에 청림사지 안에 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현재의 나정 바로 남쪽에 청림사지로 추정되는 절터가 있다. 이 지역이 월성으로 궁을 옮기기 전의 근거지였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하지만 팔각 건물이 격이 높은 건물에만 쓰이고 이 일대가 박씨 가문에서 신성시하는 지역이다 보니 박혁거세 등과 관련된 제사 시설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주지역에선 처음으로 나정(사적 245호) 일대에서 발굴된 팔각 건물터 유구 배치도.

오재진 선임 연구원은 "팔각 건물터가 경주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며 "건물터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나정 전체를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양성교론 색인집

'권 7' 부분 첫 발행

최종남(중앙승가대 강사) 씨가 〈범어 · 티베트역 · 한역 대조 현양성교론 색인〉(한국전통불교연구원)을 최근 펴냈다. 〈현양성교론〉은 유식학파의 제2조인 무착이 시조인 미륵의 〈유가사지론〉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섞어 모아 20권(11품)으로 구성한 책. 이번에 펴낸 색인집은 〈현양성교론〉 중에서도 계 · 정 · 혜 삼학을 설명하고 있는 '권7' 부분으로 〈유가사지론〉의 '성문지(聲聞地)' 권21, 22, 26, 28, 33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발간된 15종의 색인집은 모두 일본에서 나왔었다.

기존의 색인집이 〈현양성교론〉 권7에 나오는 용어를 적고, 이에 해당하는 부분을 1938년 티베트 사원에서 발견된 〈유가사지론〉 '성문지'의 산스크리트어 필사본, 티베트어 번역, 한역본에서 찾아 배열하는 방식이었다면 문헌학적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이 새롭다.

불교의식(범음 범패) 수련생 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특별속성반 3개월 과정 (제10기)
- 지도방법 : ① 출강 …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후 5시~7시(2시간)
  ②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 학습내용
  ① 승주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경편(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해례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헌공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식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사진 3매, 주민등록등본 1통
- 접수마감 : 2002년 7월 6일까지(현재 접수중)
- 접수방법 : 전화 접수 후 서류 제출
- 개강일시 : 2002년 7월 10일 (수) 오후 5시, 본 대학 강의실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원의 특징 -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지도와 편의 제공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부설 불교의식연구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http://www.pubsa.org

직원모집

불교활동에 의욕적이고 돈독한 신심으로 근무할 업무직원을 모집합니다.

① 자격 : • 남 · 여 관계없음
• 컴퓨터 가능자
• 불교 기자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

② 모집인원 : 0명

③ 접수방법 : 이력서 지참 면접

④ 모집기간 : 7월 6일까지

법사불교신문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 (견지빌딩 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오가피를 아신다면 이글을 꼭 읽어보십시오" 라는 거짓 광고를 고발합니다!!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자
(주) 한국자연과학 대표
강 훈 구 氏

▣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의 비교

구 분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학 명	Acanthopanax Senticosus	Acanthopanax
각국의 명칭	한 국: 가시오가피 러시아: 시베리안 진셍 중 국: 자오가(싸우꾸지) 일 본: 에조우고기	한 국: 오가피 러시아: 없음 중 국: 오기 일 본: 우고기
각국의 정부정책	한 국: 보호이상식물 러시아,중국: 국가보호수	해당사항 없음
국내출자가격	수입산: 리터당 30만원 국내산: 구하기 어려움	국내산:리터당 5만원
최국 석학들의 논문 및 보고서	· 러시아 브레크먼박사-가시오가피의 약리작용에 대한 연구보고 · 독일 바그너박사-한국산 가시오가피의 유효성분이 가장 뛰어남 · 중국 체홍진 박사의 연구보고 외 논문 다수	해당사항 없음
오일내	비늘같은 진기시가 백백함	정미가시 같은 큰 가시가 듬성듬성 나 있음

식 물 명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류			
		지리오가피	시베오가피	섬오가피	왕오가피
엘레우테로사이드 E 함량(mg/g)	1.92	1.10	0.86	0.35	0.24

- 농촌진흥청 호남작물시험장 연구 보고 -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제4민사부 결정을 조롱하는 당신!

수신오가피 성광수씨에게 묻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결정이면 잘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법의 존엄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당한 당신의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거금 5억원이라는 공탁금을 걸고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문도 휴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오늘 현재까지 관법공고로 사법부의 관결을 비웃고 있습니다. 법의 존엄과 법의 결정은 휴지입니까?

지난 몇 년간 가시오가피 내용으로 오가피 제품을 팔아 승승장구하던 수신오가피가 최근 조작까지를 서슴치 않는 것은 가시오가피의 진실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어서 입니까? 특히, 막대한 광고비를 들이면서도 영업에 압박을 받게 되자 본인 의도하에 조작된 샘플을 이용하여 실험해 놓고 마치 본인의 제품이 가장 우수한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위기감의 발로입니까? 함박재가시오가피 농장에서 재배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보호식물로 지정한 가시오가피입니다. 당신은 오가피 나는 가시오가피이므로 가는 같이 다릅니다. 당신이 무엇이라 하던 오가피가 가시오가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수신오가피 성광수씨의 물음에 답하고 묻습니다!

1. 당신은 자기 제품(수신 토종오가피)의 시료는 농축하고 함박재가시오가피 제품 여는 물을 먹여 시료를 조작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호남작물시험장 연구 보고』(도표참조) 그런데, 당신의 손을 거치면 없는 것이 나타나고 타사의 것은 작아집니까? 당신은 뻔뻔 도깨비 방망이를 지녔습니다.
2. 당신이 말하는 가시오가피의 지표는 아칸토사이드D가 아니라 이소프락시딘입니다. "이소프락시딘이 없으면 가시오가피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진짜 가짜를 식별하는 지표로 삼는 것은 가시오가피에만 있는 성분으로 다른 식물에는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미량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이소프락시딘을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는 있습니까?

[수신오가피 성광수씨는 오가피를 가시오가피 내용으로 광매하고 있었습니다.]

▶ 당신이 편저자이고 수백만부 이상을 뿌린 (토종오가피의 효능) 이라는 책자 40쪽부터 47쪽까지 복용사례, 기타 인용문 중 오가피는 가시오가피입니다.
▶ 일본의 에조우코기는 오가피가 아니라 우리말로 가시오가피입니다.
▶ 구 소련의 브레크먼이 인삼 대타로 연구하여 세계에 그 약리작용을 알린 것은 오가피가 아니라 엘루테로쿠쿠스 즉, 우리말로 가시오가피입니다.
▶ 독일의 석학 바그너 박사가 한국산이 소련산의 4배, 중국산의 6배의 엘루테로사이드 E가 많다는 것은 오가피가 아니라 가시오가피입니다.
▶ 구 소련의 우주비행사나 올림픽 출전선수들이 음용한 것은 오가피가 아니라 가시오가피입니다.

3. 국내 최대 오가피 재배자라고 주장하는 수신오가피의 성광수씨 천안 수신면에 위 치한 농장이 당신이 주장하는 최대의 농장입니까? 그 농장의 생산량은 당신이 현 재에 판매하고 있는 원재료의 1개월분도 채 안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농장은 러시아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습니까?

"좋은 일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 머피의 말

문의전화 (02) 2272-4900